

# 문화예술 분야 창업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과 미래 연구 방향

## Research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on Start-ups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s in Korea

배수진<sup>1</sup>

Su-Jin Pae<sup>1</sup>

### 요 약

본 연구는 경영학 분야 및 문화예술 분야에서 제시된 창업 관련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창업 관련 연구주제를 체계화하고 미래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우선 경영학 분야 학술지에서 제시된 창업 관련 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창업연구의 흐름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2015년 이후 제시된 문화예술 분야 창업 관련 국내연구를 네 가지 연구영역 (① 창업자(예술인)의 개인 특성과 창업 관련성 연구, ② 예술 분야별 창업사례연구, ③ 지원사업과 창업연구, ④ 창업기업 형태별 연구) 으로 분류하고 각 영역별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경영학 분야와 문화예술 분야의 창업 관련 선행연구를 통합하여 문화예술 분야에서 논의될 수 있는 향후 연구주제를 체계화하고 미래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문화예술 분야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창업기업 운영과 지원정책 제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관련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어 : 문화예술, 창업, 연구동향, 경영

###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s previous research trends related to start-ups in the field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culture and arts in Korea, systematizes related research topics, and presents future research directions. First of all, the flow of start-up research is presented through the analysis of start-up-related studies presented in business administration journals. Next, after classifying the research related to start-ups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s presented in Korea since 2015 into four research areas (① research on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entrepreneur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tart-ups, ② study on start-up cases by arts field, ③ research on support policies and start-ups, and ④ research on types of start-up companies), the significance and implications of research in each area are presented. Lastly, by integrating previous research on start-ups in the fields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culture and arts, this paper systematizes research topics that can be discussed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s and present future research directions. This study is expected to identify various factors related to start-ups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s, provide basic data for practical start-up operation and support policy proposals, and contribute to revitalizing related research.

Keyword : Culture and Arts, Start-ups, Research Trends, Management

<sup>1</sup> College of General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Professor]  
e-mail : sjpae@cau.ac.kr

Received(March 1, 2024), Review Result(1st: March 19, 2024), Accepted(June 7, 2024), Published(June 30, 2024)



© 2024 The Authors. Published by NCIS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licensed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4.0 International Licens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 1. 서론

정부는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후 업력 및 사업 주기에 따라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예술기업 자생력 제고와 예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 주기별로 사업화 자금 및 창업보육 등을 지원하는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점차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문화예술 분야 창업기업의 효과적인 육성과 지속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창업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이에 대한 성과평가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현재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업과 관련하여 보고된 선행연구는 다른 분야의 창업 관련 연구에 비해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다. 특히 예비창업 단계부터 진입, 안정화 단계에 이르는 기업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 및 환경, 경영전략에 대한 제시, 지원정책의 적절성 및 개선에 관한 지속적 논의가 요구됨에도 다양한 연구가 제시되지 않고 있기에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문화예술 분야에서 제시된 창업 관련 연구의 전체적인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문화예술 분야의 창업에 요구되는 다양한 항목들을 도출하여 정리함으로써 관련 연구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창업 관련 연구가 가장 많이 발표된 경영학 분야 연구에서 창업 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한 국내연구들을 조사하여 전체적인 창업연구의 흐름을 제시한다. 이후 문화예술 분야의 창업 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경영학 분야 주제를 포괄한 추가 연구방향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2015년 이후 국내에서 제시된 문화예술 분야 창업 관련 연구들을 크게 네 가지 영역(① 창업자(예술인)의 개인특성과 창업 관련성 연구, ② 예술 분야별 창업사례연구, ③ 지원사업과 창업연구, ④ 창업기업 형태별 연구)으로 분류하고 각 영역에서 제시된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을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경영학 분야와 문화예술 분야의 창업 관련 선행연구의 통합적 분석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에서 논의될 수 있는 향후 연구주제를 체계화하여 정리하고 미래 연구방향을 논의한다. 본 연구는 창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창업기업운영 및 관련 지원정책 제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관련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 경영학 분야 창업 관련 연구

본 절에서는 창업 관련 연구동향을 제시하는 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창업 관련 분야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주요 연구주제 및 연구방향을 파악한다. 특히 경영학 분야의 학술지 및 학위논문에서 창업과 관련하여 전체 업종을 포괄한 연구를 주로 제시해왔기에 경영학 분야 연구의 창업 관련 연구동향을 제시한 논문들을 살펴본다.

김규태 [1]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등재학술지 172편을 대상으로 국내 대학생 창업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존연구는 창업과 창업자 특성과 창업교육 관련 연구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창업의지,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등의 변수 관계를 탐색하는 양적 연구를 주로 다루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향후에는 창업아이디어 발굴, 창업환경, 창업제도 등의 연구영역으로 확장이 요구되며, 창업 관련 다양한 변수 관계를 탐색할 필요가 있고,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과의 메타분석이 요구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변수는 대학생뿐 아니라 일반창업자들을 대상으로도 다수 분석되었다. 장재식 [2]은 2005년부터 2021년까지 DBpia에 등록된 국내 소상공인 창업과 관련된 78개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동향, 논문에서 사용된 변수의 변화 등을 살펴보고 창업연구 방향성을 정리하였다. 가장 많이 이용된 독립변수는 창업자 특성, 환경특성, 기업가정신이었으며, 매개변수·조절변수는 자기효능감과 교육만족도였고, 종속변수는 경영성과와 창업의지로 나타났다.

창업 관련 연구동향은 텍스트 분석방법을 통해서도 제시되었는데 한성수 [3]는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창업동향을 분석하였다. 창업 관련 메타연구들에 대한 분석결과, 창업지원, 창업단계, 창업기업형태, 창업교육, 창업보육, 창업정책, 창업금융, 해외창업, 창업가정신, 창업팀 구성, 자기효능감 등이 주요 연구주제를 제시하였다. 정호정 [4]은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국내외 창업학 분야의 학위 및 학술논문의 주제별 연구동향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16년 이후에 발표된 국내 연구주제의 경우, 기업지원정책, 기업지원성과, 창업의지 및 요인, 기업가정신, 서비스 요인, 창업교육, 창업역량 순으로 나타났으며, 국외 연구주제의 경우, 기업가정신, 가족기업, 벤처투자, 중소기업, 지역기업, 여성창업 순으로 나타났다.

일부 연구는 창업(사업)실패에 관련된 주제를 정리하였다. 배태준과 최윤희 [5]은 1979년부터 2019년까지 게재된 40편의 연구를 대상으로 사업실패의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5가지 주제(① 실패 예측, ② 실패 전·후 감정, ③ 감정 외 실패비용, ④ 실패원인, 재창업결정 및 성공요인)로 분류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조영룡과 박주영 [6]은 폐업 소상공인의 재무적자본·시장경쟁력·사회적자본 손실지각이 재기의도(재창업의지, 취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영향에 대한 실패두려움과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여, 정책실무를 제안하였다.

임이숙 [7]은 중소기업연구에 게재된 여성기업인과 여성창업/기업과 관련된 연구논문을 조사하였으며, 국외연구의 경우 창업진입부터 창업활동, 창업기업 경영까지의 창업단계에 따라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 3. 문화예술 분야 창업 관련 연구

현재까지 문화예술 분야에서 보고된 창업연구는 경영학 관련 학술지 등에 보고된 연구와 비교

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연구가 보고되었고 연구주제도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유사 주제를 통합하여 2015년 이후 발표된 연구를 네 가지 영역 (① 창업자(예술인)의 개인 특성과 창업 관련성 연구, ② 예술 분야별 창업사례연구, ③ 지원사업과 창업연구, ④ 창업기업 형태별 연구) 으로 분류하여 제시한다.

### 3.1 창업자(예술인) 개인 특성과 창업 관련성 연구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경영학 분야에서 제시된 연구와 유사하게 창업자 개인의 특성과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제시되었다. 대부분의 문화예술 분야 창업 관련 연구가 사례연구 위주로 진행된 데 반해 창업자 개인 특성과 창업의도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설문조사 등을 통한 실증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정재엽 [8]은 문화예술전공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내외부 환경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계획적 행동이론을 기반으로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직무만족, 고용장벽, 위험감수성향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소관룡과 박우진 [9]은 문화예술을 전공하는 대학생과 3년 미만의 스타트업들 중 264명의 문화예술전공 CEO를 대상으로 문화예술전공자의 조직문화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예술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김영은 [10]은 기회식별 및 개발 이론과 사회적 자본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청년들의 창업의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 요소를 파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청년대상 창업기회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향후 개인 특성 및 환경요인과 창업 간 관련성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변수를 이용한 분석이 요구된다. 문화예술 분야 창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통해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 3.2 예술 분야별 창업사례연구

일부 연구에서는 예술 분야별로 창업 관련 사례연구를 제시하였는데, 창업과정 및 창업 이후 관리 및 운영 관련 사례, 성공요인 사례 등이 제시되었다. 김보름과 천혜정 [11]은 우사단로10길의 역사적 형성, 공간에 대한 미디어 재현방식을 검토하여 우사단로10길의 양상을 알아보고, 해당 길에 거주하면서 작업실 및 상점을 운영하는 청년 예술창업가들의 공간전유와 전략적 활용에 대해 보고하였다. 장선희 [12]는 조형예술 디자인 분야의 여성 창업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실질적인 창업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박미연과 김선영 [13]은 예술분야 스타트업에서 5가지 측면(창업자요인측면, 자원요인측면, 산업환경측면, 경영전략측면, 예술적 요인)의 성공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밖에 창업을 위한 계열 맞춤형 수업모형 개발과 창업기업의 서비스품질에 대한 연구도 제시되었다. 서승연 [14]은 디자인 계열 학생들의 디자인 창업 수업 기초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구아민

등 [15]은 디자인·공예 창업기업의 서비스품질(전문적 판단, 서비스 프로세스, 시설품질, 전반적 서비스품질)과 지각된 가치, 만족도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박기남 [16]는 1999년부터 2019년까지 발행된 89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디자인창업 관련 국내 연구동향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연구대상은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창업자 순으로 나타났으며, 예비창업자는 실증적 연구방법을, 창업기업과 창업자는 해석적 연구방법의 활용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초기에는 평가유형이, 2010년부터는 역량 및 지침 유형 연구가 본격화되었으며 2015년 이후 디자인, 평가, 역량, 지침 등 모든 유형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됨을 보고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사례연구는 다른 예술분야에 비해 실제 창업과 관련성이 높은 디자인 조형예술분야에서 보다 활발히 진행되었다. 사례연구는 특정 분야 및 기업의 창업과정 및 운영에 대한 상세한 현황 보고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3.3 지원사업(교육/재정)과 창업연구

최근 정부는 창업교육이나 재정지원 등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 분야 창업의 경우 예술창업의 빈약한 시장규모, 체계적이지 못한 창업교육, 예술가의 비즈니스 마인드 및 수익구조의 부재 등으로 인해 성공적 사례 도출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한다 [17]. 이에 관련된 맞춤형 지원 및 교육, 그리고 지원과정 및 결과에 관한 후속연구와 개선방향 제안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선행연구에서도 예술가 창업지원 프로그램 관련 사례연구를 통한 개선안들이 제시되었는데, 송진화 [18]는 공연예술인 창업의 개념과 창업지원에 대한 내용을 고찰하고, 국내외 공연예술인 창업지원 사업 사례를 창업지원 4단계로 구분·비교하여 국내 창업지원 사업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송진화와 이동수 [19]는 예술인 창업교육 지원사례 연구를 통해, 예술장르별 맞춤 교육을 통한 체계적인 커리큘럼 개선, 정기과정으로 효율적인 과정 구축, 예술경영자와 예술인 간 정보교류가 가능한 네트워크 지원프로그램 증설 등을 제안하였다. 강주희와 최나영 [20]도 예술가 창업의 특성을 파악하여 국내외 예술가 창업지원 사례를 분석하고 전문가 면담과 정책 세미나를 통해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부 연구는 대학과 정부의 창업교육지원, 대학생의 창업지원프로그램과 창업의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조은환과 박정순 [21]은 디자인 창업을 위한 대학과 정부의 융합교육방안을 제시하였다. 송진화와 이동수 [22]는 공연예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창업의지 관련 변수를 이론적으로 규명하고 창업지원프로그램의 개선방향에 대해 시사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현행 문화예술 분야의 창업지원 제도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예술인 창업의 효과적 지원을 위한 실질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창업지원 사업 관련 연구는 기존 창업지원 제도의 개선을 통해 향후 도입될 프로그램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 3.4 창업기업 형태별 연구

최근 온라인 창업이 활성화되면서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관련 연구가 활발히 제시되었다. 조종혁과 배태준 [23]은 온라인 예술 플랫폼 기업 사례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였다. 배태준 [24]은 예술 플랫폼 창업기업 형태를 분석하여 예술 플랫폼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들의 예술창업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김주현 [25]은 온라인 기반 예술창업에 대한 공유개념도를 연구하였는데, 연구대상으로 2020년부터 예술 창업가의 제품판매를 지원하는 온라인 예술상품 쇼핑몰 ‘아트샵’을 선정하여 온라인 쇼핑에 익숙한 밀레니얼세대를 심층 인터뷰하였다.

한편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주식회사 이외에 조직형태(사단법인, 재단법인, 협동조합 등)의 설립이 나타나기에 관련 연구가 보고되기도 하였다. 조남규와 최자인 [26]은 국내 문화예술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외의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 각종 시민단체의 운영현황 사례를 국내 상황과 비교분석하여, 국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양적·질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문화예술단체는 다양한 조직형태로 설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창업기업 형태별 연구는 다른 분야에 비해 문화예술 분야보다 세분화된 사례연구가 제시될 수 있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주식회사 형태로 창업 시 최근 다양한 창업트렌드를 반영한 융합연구도 요구된다.

## 4. 문화예술 분야 창업 관련 연구의 향후 연구방향

본 절에서는 경영학 분야와 문화예술 분야에서 제시된 창업 관련 연구주제를 통합·정리하여 문화예술 분야에서 연구될 수 있는 연구주제를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창업분야는 다양한 연구주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Vesper [27]는 Schreier와 Komives [28]가 분류한 창업관련 20개 영역을 10개 분야로 재분류한 바 있다. 또한 선행연구는 창업단계별로 맞춤형 교육 및 재정적 지원, 활동 및 경영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창업단계를 [표 1]과 같이 세 단계(예비창업→창업활동 및 창업경영→위기관리)로 구분하여 단계별 연구주제와 공통연구주제를 정리하였다.

우선, ‘예비창업단계’는 창업진입 및 기반조성 단계로 창업자 개인 특성, 기업가정신, 창업자 내외부 환경특성, 창업요인 및 창업의지, 예술인 초기창업지원 프로그램, 창업교육, 창업팀 구성, 투자유치 유형에 관한 연구가 포함된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업자인 예술인의 특성이나 창업지원프로그램, 투자유치 등이 반영된 연구가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다음으로 ‘창업활동 및 창업경영 단계’에서는 창업아이디어와 사업화 및 확장 관련 단계이다. 이 단계에는 창업아이디어 발굴 및 구체적인 창업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연구가 포함된다. 또한 창업이후의 정부 지원제도와 정책에 관한 연구가 제시될 수 있으며 문화예술 분야의 특징적 창업환경과 관련된 연구가 제시될 수 있다. 또한 실제 창업 형태(설립형태, 여성창업, 지역기업, 해외창업

등)에 따른 연구 등이 제시될 수 있다. 추가로 창업 이후 지속적 네트워크, 운영 및 서비스품질 관리에 대한 연구도 제시될 수 있다.

[표 1] 문화예술 분야 창업단계별 연구주제

[Table 1] Research topics for each stage of startup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s

창업 단계	예비창업 창업진입/기반조성	창업활동 및 창업경영 창업아이디어/ 사업화 및 확장	위기관리 사업실패/위기극복/ 재기
연구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자 개인특성 (ex. 자기효능감, 위험감수성향, 다양한 역량 등)</li> <li>▪ 기업가정신</li> <li>▪ 창업자 내외부 환경특성 (ex. 직무만족, 고용장벽, 조직문화, 사회적환경 등)</li> <li>▪ 자기효능감</li> <li>▪ 문화예술 분야 창업요인</li> <li>▪ 문화예술 분야 창업의지</li> <li>▪ 예술인 초기창업지원 프로그램</li> <li>▪ 예술인 창업교육 (ex. 대학-정부-지자체-기업 연계교육)</li> <li>▪ 창업팀 구성</li> <li>▪ 투자유치유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 분야 창업아이디어 발굴</li> <li>▪ 문화예술 분야 사업모델 개발 및 사업화</li> <li>▪ 문화예술 분야 창업시스템 개발</li> <li>▪ 문화예술 분야 창업지원 제도/정책</li> <li>▪ 문화예술 분야 창업환경</li> <li>▪ 창업기업형태 (ex. 온라인쇼핑몰, 온라인 예술플랫폼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등)</li> <li>▪ 예술인-기업(가) 간 네트워크</li> <li>▪ 해외창업</li> <li>▪ 벤처투자</li> <li>▪ 여성창업</li> <li>▪ 지역기업</li> <li>▪ 문화예술 분야 창업기업 서비스품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 분야 사업실패 예측</li> <li>▪ 문화예술 분야 사업실패 원인분석</li> <li>▪ 문화예술 분야 사업실패 비용분석</li> <li>▪ 문화예술 분야 재창업</li> <li>▪ 문화예술 분야 창업성공요인 분석</li> </ul>
공통 연구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기업 성장단계별/세부분야별 창업지원</li> <li>▪ 문화예술 분야 창업지원에 대한 성과평가체계</li> <li>▪ 문화예술 세부분야별 사례연구</li> </ul>		

마지막 ‘위기관리 단계’는 실제 창업이후 사업실패 상황에서 위기극복 및 재도전 가능성에 대한 연구주제를 포함한다. 이 경우 문화예술 분야 내의 사업 실패 원인 분석과 실패 예측을 하고 실패에 따른 비용을 산정하여 재창업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업 이후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업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향후 위기관리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 창업 성공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도 요구된다.

추가로 위 단계들의 공통주제로 창업단계에 따른 차별적 창업지원 제도 및 지원에 대한 성과평

가체계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이는 창업단계별·예술장르별 다양한 사례연구로 제시될 수 있다.

이처럼 문화예술 분야 창업 관련 연구는 창업단계별로 이상의 연구들이 제시되었거나 향후 제시될 필요가 있다. 특히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주제인 문화예술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세부분야별 창업지원, 그리고 지원결과에 대한 평가는 향후 사례연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 지원정책이 도입되고 개선 및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예술 기업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위기분석을 통해 위기 예측·대비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창업정책은 정부예산으로 다양한 교육 및 지원이 제공되기에, 정부에서 목표한 경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창업진입부터 사업화와 확장 그리고 위기관리까지 연결되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및 사후관리가 요구될 것이다.

## 5. 결론

정부는 성공적인 창업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신규고용창출, 취업률 제고 등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고자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실질적인 성과가 크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의 연구자들은 관련 산업의 규모, 창업가인 예술가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성공적인 창업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문화예술 분야의 창업실무 및 관련 정책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경영학 분야의 창업 관련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문화예술분야의 최근 창업 관련 연구동향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문화예술분야에서 향후 논의될 수 있는 연구주제를 창업단계별로 제시하였다. 이상의 문화예술분야 창업단계별 연구주제의 고찰은 향후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업 관련 연구 및 정책 제안에 있어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References

- [1] K. T. Kim, “Domestic research trend of college students' start-up and entrepreneurship”,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0, no. 7, July 2019, pp. 199-213, doi: 10.15207/JKCS.2019.10.7.199.
- [2] J. Jang, “Trends in business start-up research for small business owners: Focusing on domestic academic journal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vol. 12, no. 3, June 2021, pp. 2935-2948, doi: 10.22143/HSS21.12.3.204.
- [3] S. S. Han, “Research trends analysis related to start-ups using text network analysis: Based on domestic journal papers”, Doctoral thesis, Department of Venture Management, Hoseo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18.
- [4] H. J. Jeong,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n and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research studies using



- text mining methods”,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Convergence Education and Entrepreneurship,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Republic of Korea, 2021.
- [5] T. J. Bae, Y. H. Choi, “Business failure: Overview and research trend”,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vol. 42, no. 3, September 2020, pp. 43-75, doi: 10.36491/APJSB.42.3.3.
- [6] Y. R. Cho, J. Y. Park, “The effect of perceived loss of financial·market·social capital based on recurrence intention of failed small business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fear of failure and the moderating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vol. 43 no. 4, December 2021, pp. 59-93, doi: 10.36491/APJSB.43.4.3.
- [7] Y. S. Lim, “Female entrepreneurship/enterprise research in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Review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vol. 42 no. 3, September 2020, pp. 77-100, doi: 10.36491/APJSB.42.3.4.
- [8] J. Y. Jeong, “The effect of the job satisfaction, the employment barriers and the risk-taking orientation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dergraduates majoring in cultural and art”,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 14, no. 8, December 2020, pp. 11-23, doi: 10.21184/jkeia.2020.12.14.8.11.
- [9] K. Y. So, W. J. Park,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culture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culture and arts majors, mediated by arts entrepreneurship”, *Interdisciplinary Research in Arts and Culture*, vol. 4, no. 3, September 2023, pp. 27-50, doi: 10.47415/IRAC.4.3.2.
- [10] Y. E. Kim, “A study on personal innovation and cultural art perceptions influenc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 focusing on the opportunity identification and development theory”,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Culture Art Business Administration, Chung-Ang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21.
- [11] B. R. Kim, H. J. Cheon, “Appropriation of space by youth entrepreneurs- The case of artists at Usadanro-10 Gil”, *The Journal of Cultural Policy*, vol. 30, no. 1, January 2016, pp. 56-78.
- [12] S. H. Jang, “A preliminary study for supporting entrepreneurship in the art and design field : Focused interviews with women founders”, *Korea Society of Basic Design & Art*, vol. 22, no. 5, October 2021, pp. 401-416, doi: 10.47294/KSBDA.22.5.30.
- [13] M. Y. Park, S. Y. Kim, “An analysis of success factors of arts start-ups according to the ERIS ? Focused on NEW EAST ART(Former MEUM)”, *Journal of Culture Industry*, vol. 23, no. 3, September 2023, pp. 123-133, doi: 10.35174/JKCI.2023.09.23.3.123.
- [14] S. Y. Suh, “A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a design -Affiliated customized class model for youth start-ups”, *Korea Society of Basic Design & Art*, vol. 21, no. 2, April 2020, pp. 117-128, doi: 10.47294/KSBDA.21.2.9.
- [15] A. M. Ku, H. G. Yoon, H. I. Kwon, “A study on the impact relationship between service quality, perceived value and satisfaction of start-ups in design and craft industry”,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vol. 36, no. 5, October 2021, pp. 49-75, doi: 10.23839/kabe.2021.36.5.49.
- [16] K. N. Park, “Multidisciplinary Analysis on the Research Trend of Design Based Start-up in Domestic”, *The Korean Society of Science & Art*, vol. 37, no. 4, September 2019, pp. 137-147, doi: 10.17548/ksaf.2019.09.30.137.
- [17] J. H. Kim, C. G. Kwon, “A study on consumer hierarchical value map for art-based startups -based on the cases from Sungshin Women's University, campus town team-”, *Korea Society of Basic Design & Art*, vol. 21, no. 3, June 2020, pp. 93-106, doi: 10.47294/KSBDA.21.3.8.

- [18] J. H. Song, "Improve plan for the supporting business for performance artists' startup launching", Master's thesis,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Studies of Arts, Sungkyunkwan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19.
- [19] J. H. Song, D. S. Lee, "Studies of supporting education program operation for the starting-up artists", *Journal of the Acting & Arts*, vol. 16, December 2019, pp. 199-215, doi: 10.26764/jaa.2019.16.12.
- [20] J. H. Kang, N. Y. Choi, "A study on improvement of support policy for artist startup",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Studies*, vol. 12 no. 3, June 2017, pp. 51-79, doi: 10.15815/kjcaes.2017.12.3.3.
- [21] E. H. Cho, J. S. Park, "University and Government Support Education for Convergence Design Entrepreneurship", *Journal of Cultural Product & Design*, vol. 53, June 2018, pp. 119-127, doi: 10.18555/kicpd.2018.53.12.
- [22] J. H. Song, D. S. Lee, "Effectiveness of performing art major student's personal trait & startup supporting program on startup willing - Based on mediate effects of social support -", *Journal of the Acting & Arts*, vol. 22, May 2021, pp. 107-127, doi: 10.26764/jaa.2021.22.6.
- [23] J. H. Cho, T. J. Bae, "Analysis of online art platform cases: Analysis of business model",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 17, no. 6, December 2022, pp. 175-193, doi: 10.16972/apjbve.17.6.2022.175.
- [24] T. J. Bae, "The Analysis of art platform startup forms",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Entrepreneurship, Hanyang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22.
- [25] J. H. Kim, "Mapping a consensus map for art startups based on online environment", *Korea Society of Basic Design & Art*, vol. 21, no. 5, October 2020, pp. 75-86, doi: 10.47294/KSBDA.21.5.6.
- [26] N. G. Cho, J. I. Choi, "A comparative analysis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case studies of the ecosystem of overseas social economy enterprises to solve the social problems of Korean culture and arts", *Officia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vol. 37, no. 4, October 2020, pp. 39-54, doi: 10.21539/Ksds.2020.37.4.39.
- [27] K. H. Vesper, "Sub-Field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In *Academy of Management Proceedings*, vol. 1977, no. 1, November 1977, pp. 440-444, doi: 10.5465/AMBPP.1977.4977809.
- [28] J. W. Schreier, J. L. Komives, "The Entrepreneur and New Enterprise Formation: A Resource Guide", Center for Venture Management, Milwaukee, WI, USA, November 1973.